

마구 써 버리고 싶은 푼돈이
그의 돈주머니 바닥을 태워 버렸다.

토머스 모어 경



마구 써 버리고 싶은 푼돈이 그의 돈주머니 바닥을 태워 버렸다.

마구 써 버리고 싶은 푼돈이 그의 돈주머니 바닥을 태워 버렸다.

마구 써 버리고 싶은 푼돈이
그의 돈주머니 바닥을 태워 버렸다.

마구 써 버리고 싶은 푼돈이
그의 돈주머니 바닥을 태워 버렸다.
